순천에 문화 씨앗 뿌리는 '호아트센터' 최윤정 원장

장일범

클래식·미술로 받은 위로 시민과 나누고 싶어

장일범 클래식 강의·박영택 미술 강좌 등 개최

학부모 대학·예술인에 공연장 무료 대여도

피아노 서현일 등 하우스 콘서트 39차례 열어

유명 클래식 해설가 장일범씨는 매달 한차례 순천에서 클래식 강의를 갖는다. 방송 진행으로, 각종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가 순천까지 내려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호아트센터 최윤정(43) 대표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였다. 장씨는 29일부터 5개월간 '장일범의 클래식 세계도시 여행'을 주제로 강의한다.

대도시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강좌를 이끌어낸 최윤정 대표는 지금 문화예술 불모지 순천에 작은 '문화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최 대표는 대학시절 관현악반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클래식 공부에 빠져든 건 지인의 소개로 광주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에 다니면서부터다. 토요일 강좌에 등록한 그녀는 매주 다락을 빠짐 없이 찾았고, 클래식 강좌나 공연 등이 거의 없는 순천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언젠가 '다락'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

"처음 다락 강의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전에도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클래식의 흐름을 한번에 알 수 있어 흥미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힐링됐고 위로가 됐어요. 순천에서도 이런 강의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죠."

좀 더 나이 들면 공간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인척이 지은 아이미코병원 건물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병원 6층에 120석 규모의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호아트센터를 열었다. 처음에는 한달에 두번씩 점심 시간에 최대표가 무료로 클래식 강의를 진행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1년 넘게'오페라 강좌'를 진행중인 소프라노 유형민, 피아노 토크를 운영한 피아니스트 조현영, 다락 김명선 대표 등 '다락'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초창기 그녀와 함께 꿈을 꾸고, 그녀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이들이다.

최대표는 기획과 홍보 등을 도맡고 있다. 자신이 들어보고 좋았던 강좌의 강연자들에게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고 직접 만나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초등학생 아들과 아파트를 돌며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그녀의 일 중 하나다.

최대표는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미술 강좌도 진행했다. 첫 강사는 박영택 경기대 교수였다. "지방에서도 선생님 강의를 꼭 듣고 싶다"는 메일을 수차례 보내 허락을 받았고 100여명이 강의를 들었다. 수강생들의 열정에 감동한 박교수는 내년 여름 강의도 약속했다.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인상주의에서 팝아트까지'를 주제로 강연하는 양은희(건국대 연구교수)씨 강좌는 최대표가 여수 예울마루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요청해 이뤄졌다. 장일범씨는 통영음악제에서 우연히 만나 끈질기게 섭외를 했다.

초창기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클래식 교실'이다. 대표가 첫째주에 '최윤정의 클래식 아카데미', 유형민씨가 '오페라 교실'(둘째·셋째주)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우와한 예술학교'를 열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은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쇼생크 탈출' 등 영화로 입문하는 클래식 강좌다. 두 강좌 모두 12강좌에 수강료는 6만원으로 저렴하다.

하우스 콘서트도 지금까지 39차례나 진행했다. 지방 중소도시 아트홀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초창기에는 욕심이 많아 한달에 2~3번씩 진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연주자를 엄선해 1~2개월에 한 팀 정도 공연을 열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의 렉쳐 콘서트와 서현일의 베토벤 피아노 전곡 연주회 등이 열렸고 지난 26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피아니스트 정연하 초청 연주회가 진행됐다. 그밖에 화요일 오전에는 '호아트센터 학부모 대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영화 상영회도 열고 있다.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갤러리 역시 미술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의욕은 높지만 운영은 여전히 힘들다. 하우스 콘서트 티켓을 유료 판매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초창기에는 무료 관객을 초청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악순환을 끊었다. 강좌와 연주회 운영 적자는 사비로 메워가며 고군분투중이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을 만나서 행복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천천히 길게 가자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과 회원모집에 조바심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강사와 좋은 연주자를 모셔오면 분명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의 힘을 믿거든요. 아들이 오페라 강의를 듣고 변하는 게 보이니까요. 오페라 교실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1년반 정도 다니는데 너무 즐거워해요. 문화예술 강좌가 가족끼리 소통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행복한 문화 세례를 받는 중이다. 호아트센터(cafe.daum.net/artho) 문의 010-8799-4048.

/순천=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풍선과 유산이 든 가방' 발간

광주전남소설가협회 동인 작품집 '풍선과 유산이 든 가방'(심미안)이 발간됐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1970년 '소설문학' 창간 이후 열한 번째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

254쪽으로 발간된 작품집에는 '풍선 위에서 다람쥐가 춤추는 시간'(김민라), '막대한 유산'(김영미), '루큐의 무희'(김현주), '흐르는 길'(문순태), '세월의 무게'(박신영), '가죽가방'(범현이), '벽돌 쌓는 남자'(성보경), '메멘토 모리'(이원화), '그녀의 향기'(최문경), '염소'(한광현) 등 모두 10편이 수록됐다.

조성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은 "작품집 발간은 회원들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수록된 이야기들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이며 꼭 있었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작품집 발간 출판기념회와 총회가 내달 23일 오후 7시 광주 상무지구 진미청국장(상무소각장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5622-9285.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루돌프 아이히너 명예 영사, 송효숙 WCN 대표, 헬가 라블-슈타들러 대표, 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오세요"

내년 7~8월 196개 공연

한국서 첫 설명회·홍보

"현재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음악을 통해 한마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한국인들이 더욱 많이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유럽 3대 음악 축제중 하나로 꼽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아 설명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여름에 열리는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매년 7~8월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들이 모여 연극,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공연을 펼치는 종합예술 축제다. 매년 80여개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관객이 모이고 있으며 2017년 축제는 7월 21일~8월 30일까지 오페라 40개 작품, 연극 54개 작품, 콘서트 79회 등 196개의 공연이 펼쳐진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헬가 라블-슈타들러 대표는 "잘츠부르크에 거주하는 한인 2500명 중 1200명이 음악 공부를 위해 온 유학생일 정도로 한국사람들의 음악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봤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축제를 찾아와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커스 힌터호이저 총 예술감독은 "오스트리아에서도 규모가 큰 콩쿠르 심사를 맡기도 하는데 요즈음 한국인 참가자들이 예술적으로나 테크닉에서 우수해졌다는 걸 느꼈다"며 "한국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음악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한국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점을 둔 음악기획사 WCN(대표 송효숙)이 행사를 주최했다. WCN은 한국의 재능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해 국제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유럽을 중심으로 친선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다.

송효숙 WCN 대표는 "한국 관객과 음악 마니아들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여로만 끝날 뿐 한국 음악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았다"며 "페스티벌 임원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설명회를 갖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문화 교류는 물론 한국의 음악가와 애호가들이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이보람기자 boram@

/사진=나명주기자 mjna@